

# 비이상적 사회 속, 당신은 ‘스튜핏’인가 ‘그웨이트’인가

##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④ 건전한 한국사회 되려면 (필)

유통업계, 경기 불황에도 ‘고가’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 제주도 난민·맘충·재벌 등 ‘혐오’ 이성·합리적 경제활동 필요할 때

‘아노말리(Anomalies)’란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기 힘든 비이성적 행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논리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도 부른다.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의 활황세를 구가할 때 당시 중앙은행(Fed)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장세가 ‘비이성적 과열’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사람들이 실제 가치보다 자산의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 이로 인해 투기적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아노말리 현상은 때론 사회적, 경제적 병폐를 낳는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서 아노말리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병폐의 단면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노말리 현상들

먼저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에도 고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1년 새 수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고가 정책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앞세워 소비 심리를 자극,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마케팅이 통한다는 점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렌 효과’가 국내 시장에 만연한 데다 ‘가치 소비’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투기심리가 가세한 부동산 시장 또한 대표적인 아노말리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

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반영돼 호가가 수억원씩 뛰고 청약에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하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이성적인 것 같은 자본시장에도 ‘아노말리 현상’은 나타난다. 투자자에게는 지나친 투기 심리, 자본시장 노동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에 대한 심각한 가격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지난 겨울 우리 사회에 광풍을 몰고왔던 ‘가상화폐 열풍’이 자본시장의 아노말리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립 버블을 언급하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는 아노말리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뜨거

운 이슈가 됐던 제주도 유입 난민에 대한 이유없는 혐오와 ‘맘충’으로 대표되는 여성 양육자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 노조 및 재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정치 혐오 등이 모두 아노말리 현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할 때

현실 속 인간은 때로는 비(非)이성적이고 간혹 비(非)이거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는데 고급휘발유를 조금 더 주유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 날에 목머치 않으려고 우산값을 올리지 않는 가게 주인도 있다. 기존 주류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보통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휘발유를 더 많이 소비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값을 올린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심하게 비이성적으로 돌변한다는 점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지니는 많은 고정 관념과 인지(認知)의 오류를 분석한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가 이성적인 판단에서 멀어짐으로써 국민경제 전

체의 저축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증권 시장에서 여러 ‘이상(異常: anomalies)’ 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노말리 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아노말리가 일반화 된 시대에 당신의 행동은 ‘그웨이트’ 일까, 아니면 ‘스튜핏’ 일까?

한국 경제는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용쇼크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우울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 곳곳의 비이성적 아노말리 현상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야말로 아노말리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 이른바 ‘블랙 스완(Black Swan: 예외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실제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부르는 용어)’을 대비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신뢰, 그리고 국민과 경제 참여자들의 올바른 행동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거품과 모순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최신호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워킹맘 10명 중 3명이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유투이미지



지난달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 뉴스스

최근 서울 지역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갭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 채신화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맺은 ‘특수학교 설립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어느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아빠는 육아휴직 10일, 할머니는 매달 25만원

(기초연금)

### 文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시행 ‘프리젠테이션’ 출산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총 49쪽(표지포함)에 달하는 시정연설 관련 프리젠테이션도 별도로 준비해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예로 든 어느 4인 가족은 결혼을 한 뒤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과 남성으로, 맞벌이를 하는 이들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로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

대 90일간 정부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산모는 또 출산을 한 뒤엔 건강관리사로부터 산후조리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면서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린 것이다. 또 3개월 후에는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 지난 9월부터는 한 아이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분유값과 기저귀값 부담도 다소 덜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가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면서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3년이 지난 후엔 3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65세가 넘는 어머니는 매달 25만원의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기존보다 월급을 두 배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다”면서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당첨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일부. /청와대

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

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